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동공사역화·방지를 위한 은총의 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절 2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천파의 모든 가족이 모여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올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의 소임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화의 물결이 넘실거리게 하시고, 따스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의 작은 모임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동해바다 위로 새로운 해는 떴지만 이 땅 위에 새로운 빛은 비추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대립과 갈등의 분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참 빛이 되시는 주님,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눅2:30-32
♠ 교 독 문	93. 새해(1)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552(통358). 아침 해가 돋을 때
성경봉독	렘 29:4-9
찬 양	찬양대
말 씬	복 짓는 나날
거듭기도	김기석 목사
	다함께

- 찬 송 620. 여기에 모인 우리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복되게 살겠습니다.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복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 주관예배	기도의 밤
시므온 나오미 선교회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고정한 학생	최다미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서정순 집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최현옥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무위당 장일순의 일화들 (2)

◆ 살다보면 점집에 가지 않고도 점을 치게 되는 일이 있다. 뜻밖에도 세 상에는 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순전히 취미나 호기심으로 점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색하고 사주나 주역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 재미로 손금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제 공부를 바탕으로 아는 소리하기를 좋아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싫다 해도 기어이 끝어다 놓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다. 손바닥을 펴보라 한다. 그것은 장일순도 예외가 아니었나 보다.

어떤 관상가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얼굴입니다. 사람이 많이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주쟁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주가 좋습니다. 크게 이름을 날리시겠군요.”

주역 공부를 했다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초년 고생이 보이지만 말년에는 잘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온 점술가는 좀 달랐다. 그 사람은 이렇게 잘라 말했다.

“평생 관운이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굶지 않고 사는 것만도 큰 행복인 줄 아시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말이다. 출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다. 평생을 평민으로 살아야 할 팔자라는 말이다. 재물복도 없어 겨우 굶지나 않고 살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점술가의 말을 듣고 장일순은 비로소 기분 좋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만이 진짜요.”

장일순은 자주 말했다.

“밥 한 그릇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 온 우주가 힘을 합해야 그게 만들어 지잖아. 엄청난 거지.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지.”

안빈낙도安貧樂道라 했다. 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함이 문제가 안 된다. 밥 한 그릇에 김치 한 사발만 있어도 그밖에 더 바랄 것이 없다.

◆ 장일순 내외가 쓰던 방은 남향으로 앉은 집의 문간방이었다. 하루 종일 해가 들어 여름에는 무척 더웠다. 거기다 아내 이인숙은 더위를 많이 땀다. 한여름에는 더워서 잠 못 드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날에는 장일순이 옆에 앉아 부채질로 아내의 더위를 쫓아 주었다. 장일순은 그렇게 먼저 아내를 재운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 장일순이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여汝보세요

평생을 피곤하게 가시는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마음에 있는데 표시가 잘 안 되네요. 오늘 보니까 피나무로 만든 목기가 있어 들고 왔어요. 마음에 드실지. 이 목기가 곁에 수없이 파인 비늘을 통해 목기가 되었듯이 당신 또한 수많은 고통을 넘기며 한 그릇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 장일순이 일행과 함께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었다. 길목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밥을 먹으며 이미 한잔한 얼굴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술힘을 빌려 장일순에게 평소에 품었던 의문 하나를 털어낼 생각으로 앞으로 썩 나섰다.

“선생님?”

“그래, 왜?”

“선생님은 남들 보고는 기어라, 기어라고 하면서 정작 선생님 자신은 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돌발 상황이었다. 과연 장일순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구미가 부쩍 당긴다는 얼굴을 하고 지켜보았다. 장일순은 잠시도 짬을 두지 않았다. 바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절을 했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이었다.

질문을 한 사람은 물론 양쪽 일행 또한 장일순의 이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남에게 자기를 낮추는 일! 늘 다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아는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으로 보는 수행을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에게나 자신을 낮출 수 있어 좋다 한다.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도, 자기 욕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에게는 하느님이란다. 그렇게 하니 아무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누구하고나 잘 지내게 됐다 했다.

- 최성현, 「좁쌀 한 알」 중에서

설해

겨울 나무와 /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 한 세상을 누리다

새해의 눈시울이 /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장영숙 김인걸 문영혜 강인식 김정숙 곽상준 최경미
 구명자 김경연 김일량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김지호 김희진 박홍재
 맹은선 박영희 박지인 배근수 김금순 안종일 정현주 이한림 김명희
 정복순 최종원 김정애 허신열 양재성 임미심 조항범 오현정 장성호
 무명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김수진 김승현 박범희 박미영 서정순 왕수명 이동천
 이해동 장재영 김재영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유지은 정현숙

감사헌금:

강순배 전성오 오송경 김희우 박재규 천소현 양준하 황의일 이현숙
 김효정 이갑재 유혜경 무명

녹색꿈 헌금:

이영순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신년감사** :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시므온, 나오미 선교회가 주관합니다.
3. **봉헌** : 다음 주일(10일) 예배시 금년도 십일조 및 월정 헌금을 작성해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가운데 작성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4.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5. **재무부 회의** :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세미나실에서 재무부 회의가 있습니다.
6. **구역회** : 교회의 한 해 재정을 확정하고 구역대표를 결정하는 구역회가 17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7. **결혼** : 김도원 씨와 노혜민 씨의 결혼식이 1월 9일(토) 오후 4시 30분에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8. **전화번호 수정** : 2010년 교우 전화번호부에 잘못 기재된 분들은 1층 로비에 있는 정오포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9. **주일 오전 성경공부** :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주일오전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40 ~10:20, 청년부실)
10. **새교우 교육**: 새교우의 정착을 돕기 위한 4주간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9:40~10:20, 유치부실) 새교우들은 이 시간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1. **신앙실천** : 새해 첫 주부터 성경읽기표를 사용해서 성경읽기를 시작하십시오.

* 식당 봉사: 갈라디아 속 (다음 주 : 갈라디아 속)

* 설거지 봉사: 윤석철 연태호 이준하 (다음 주 : 이성범 이국노 김민화)

새교우 소개

김경우 (5남) 이주현 (8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